

역대급 태풍 '초비상'...대비 소홀 땀 '재앙'

솔릭, 5조 피해 안긴 루사와 비수...호우·강풍 경각심 가져야 산사태·낙하물·차량 피해 주의...광주·전남 지자체 비상근무

광주·전남지역이 23일 막강한 힘을 지닌 태풍 '솔릭'(Soulik)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고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도민 사이에선 긴장감 보다는 '폭염·가뭄 해소'를 기대하는 등 태풍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해 전문가들은 "가장 최근 경험한 태풍이 6년 전인 2012년 블라벤-덴빈(2012년)이다보니, 태풍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듯하다"면서 "태풍 피해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자칫 큰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태풍 솔릭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주의 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했다. 광주·전남 등 자치단체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행정기관에 비상이 걸린 것은 이번 솔릭이 과거 광주·전남에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 루사 등과 이동경로와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5조원 넘는 피해를 안긴 2002년 루사때 광주·전남에선 사망·실종이 잇따랐고, 주택·차량 침수, 낙과, 전복 폐사, 제방 붕괴 등이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사·도는 솔릭이 광주·전남 인근을 지나 23~24일 각종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행안부와 기상청이 내놓은 태풍 행동요령에 따르면 태풍이 오기 전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또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틀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한다.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하고, 대피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두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고,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뚫어야 한다. 집 주변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법 등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하수도 맨홀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농촌에선 태풍이 불 때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는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릴 때는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므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해안지역에서는 해안가·방파제 등에 접근하지 말고, 평소보다 선박에 타이어 등을 더 많이 묶어 파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낚시도 금물이다.

태풍에 의한 차량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역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매미 때 전국에서 피해 차량 4만1042대(피해액 911억원)가 발생했고, 2012년 블라벤-덴빈-산바 2만3051대(495억원) 2002년 루사 4838대(117억원) 등으로 태풍만 왔다면 차량 피해가 급증했다.

태풍으로 차량 침수·파손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기본 보상(자기부담금·튜닝 비용 등 제외)을 받을 수 있지만, 통제구역 등에 주차했다면 보상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

허장을 손보협회 전남본부장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침수 우려지역 주차나 차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 침수 상태에서 시동을 건 경우 등은 보상이 낮아질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쟁점은 전두환 5·18 헬기사격 인지 입증 주목

검찰, 광주일보 발굴 보도 기사 등 결정적 증거로 제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이 법정에서 다툴 핵심은 5·18 당시 헬기사격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내용을 써, 조 신부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은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크게 충돌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광주지검(형사 1부)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종합할 때 5·18 당시 헬기사격은 있었으며,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소 의견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을 비롯한 50만 쪽에 이르는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헬기사격 목격자(47명) 및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광주일보가 발굴 보도한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기사 '2018년 2월 22일자 1면'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비밀전문을 확보해 번역한 결과, '군중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발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한 언론(광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 국무부에 1일 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내용에 헬기발포 내용이 담겨있는데도,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할 때 5·18을 주도한 사람(전두환)이 헬기 사격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당시 출격할 헬기 조종사 40여명 중 대부분이 진술을 거부하고, 2명만이 진술했지만 이들과마져도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두환이)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다수 목격자의 진술 ▲광주일보 사육신 전일빌딩에 대한 국가공무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헬기사격 목격자(47명) 및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추어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측은 "헬기 총소사' 부분은 5·18 당시 계엄사가 아닌 보안사 소속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회고록 집필도 책임정리자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한 만큼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북 봉화서 70대 엽총 난사 공무원 2명 사망·주민 1명 부상

경북 봉화에서 70대 귀농인이 상수도 사용 문제로 마찰을 빚던 이웃에게 엽총을 쏜 뒤 면사무소에 들어가 다시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께 봉화 소천면사무소에 김모(77)씨가 들어간 직원들에게 총을 발사해 민원행정 6급인 손모(47)씨와 8급 이모(38)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봉화군 소천면 임지역 인근 사찰에서 주민 임모(48)씨에게도 엽총을 쏘 총상을 입혔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의자는 4년 전 귀농해 최근 폭염과 가뭄에 자신이 설치한 상수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이웃과 자주 마찰을 빚었고 10일 전에도 면사무소를 찾아 민원해결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승강기 사고 구조 훈련 21일 광주시 서구청과 서부소방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역에서 승강기 고장상황을 가상해 탑승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 도곡농협, 직원 역대 횡령 4개월 '쉬쉬'

중앙회 보고 않고 뒤늦게 처리

화순 도곡농협이 직원의 1억원대 횡령 사건을 4개월 넘게 쉬쉬해오다 뒤늦게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께 화순 도곡농협에서 쌀 공급과 창고관리를 맡고 있는 판매과장 A씨가 1억13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은 농협 자체 RPC(미곡종합처리장) 실적 확인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이 건과 관련 인사위원회를 거쳐 퇴직처리(사직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곡농협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4개월이 지난 지난날 28일야 농협중

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을 뿐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횡령사건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때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곡농협의 한 조합원은 "조합 이미지가 훼손되고 사고에 따라 중앙회의 지원 감소가 우려됐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조합원도 모르게 쉬쉬해온 점은 문제다"며 "지급이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관계자는 "횡령금액은 모두 반납했고 당사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직 처리된 상태"라며 "일부러 사건을 은폐하거나 처리를 지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승=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인천 남동공단 불 9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내 전자제품 제조공장 화재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

자공장에서 불이 나 오후 5시 51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오후 6시 현재 공장 근로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공장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성범죄 전력 60대 전자발찌 끊고 30대 여친과 도주하다 검거

성범죄 전력 60대 전자발찌 끊고 30대 여친과 도주하다 검거

○...성범죄 전력 있는 60대 남성이 위치추적기(전자발찌)를 끊고 30대 여자친구와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

○...21일 안도경찰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안도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후 30대인 여자친구 B씨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2시간 뒤 집 인근에서 여자

친구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것.

○...A씨는 검거 당시 오토바이에 짐을 많이 싣고 있어 멀리 달아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경찰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죽이 교제를 반대해 이웃과 함께 도망가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

/원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8월 개강 선택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투 138평 건물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투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투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투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인근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0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9억2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00평 ▶ 감평가 8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88평 건272평) ▶ 감평가 29억2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32평) ▶ 시세 8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성동 (공장) 토500평 건250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9억2천 → 최저가 9억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0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중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9억5천 → 최저 39억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0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4백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암동 남양아파트 (24평) ▶ 감평가 19억6천 → 최저 19억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